

연 중 제 14 주 일

기도서 P. 384 C해

- 1독(이 사 66, 10-14c절)
- 2독(갈 라 6, 14-18절)
- 복음(루 가 10, 1-12, 17-20절)

숲 정 이

발행인	법	석	규
인세인	정	승	현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 감 론 □



평화를 원한다면

이 종 원 신부

우리 모두는 간절한 마음으로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라면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평화와 일신상의 평화로움을 원하며, 자녀라면 가정과 친구와 학교에서의 평안함을 갈구합니다. 크게는 세계 어느 곳이든 전쟁이 없는 세계평화를, 그리고 작게는 각자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평화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으며 그러한 평화가 우리 마음에 깃드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 신앙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본질적으로 기쁨을 주며 평화를 주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복잡다단한 생활고에 허덕이며 인생고에 피로워하는 우리에게 평화와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는 새로운 힘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 모든것을 가지고도 우리들의 공허감을 채울 길 없어 허무감과 불안속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에게 모든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포근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의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필립비 4, 4-7). 이 말씀은 사도 바오로께서 주님을 위하여 죄인으로 감옥에서 육체적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필립비인들에게 써 보낸 말씀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수원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평화가 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사슬에 결박되어 감옥에 갇힌 고달픈 몸이었지만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란 언제나 주님께만 도움을 바라고 오직 그분께 힘과 용기를 얻는 평화였습니다.

신앙을 갖지않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웃어넘길 수 있는 방법이고, 알파하고 계산속이 빠른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치에 맞지않는 어리석음이겠지요. 그러기에 그들은 외부적인 조건에서만 평화를 구합니다. -조금 더 돈이 있다면, 배웠다면, 건강하다면, 미모를 갖추었다면...

그러나 평화란 타인과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각자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평화가 머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신자로서 평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며... 뜻을 같이하여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 주실 것입니다.”(고린토 후서13, 11)
(신대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지금

먼동이 밝아오는가?

「일출봉에 아침해가 솟아오듯
월출봉에 보름달이 떠오르듯
저 멀리 눈부시게 밝아오는 아름다운 빛이 있으니
아! 그 빛은 새로 나신 사제들.

주님을 배우며 따르고
주님을 닮고, 그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고 싶어
님들은 슬한 고생과 시련이
넓은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길을
장하게도 끝까지 걸어
우리에게로 오셨네.

님들이 오신 길의 그 향기를 어떻게 형언하리.

님들은 주께서 주신 우리의 목자.

우리의 목자시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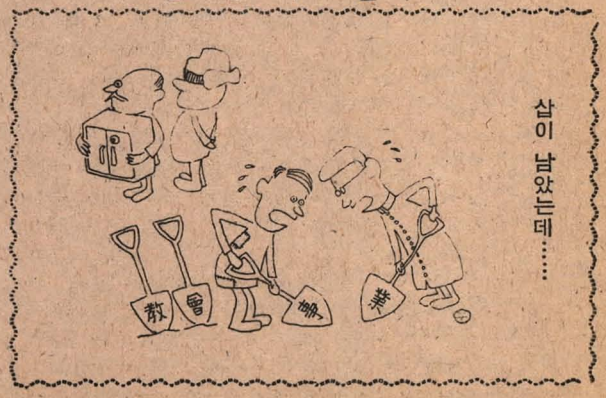
목말라 하며 허기진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소서.」

이 글은 희망찬 젊은이의 글이다. 극도로 나빠진 건강 때문에 남들처럼 활기있게 젊음을 불태우지 못하던 그가 건강을 회복해가며 기쁨과 감사를 억제하지 못하고 새 사제들의 서품을 축하하며 노래한 글이다. 박 창순(본도 22세 남원 본당)의 깊은 신심과 성모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루르드의 성모께서 어여뵈 보시어, 이제 그는 어느 정도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게까지 되었다. 그에게는 지금 먼동이 밝아오고 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굳어진 이 나라 정치풍토의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근검조치, 구속자, 제적 대학생, 인도의 총선거... -국회에서 쏟아진 이 말들은 그냥 흘러가고 말 것인가?

이 땅에도 지금 먼동이 밝아 오는가?

숲 정 이 산책





自由, 民主主義, 社會正義 성장이

유물론적 공산주의 이기는 길

□ 사회 정의를 위한 기도회 취지 □

간혹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기도회>에는 늘 나오는 이들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우리는 남다른 각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각성은 이미 바오로 6세 교황성하와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정의평화위원회>라는 교회 공식기구를 만들어 주시고, 기독교적 진리에 어긋나는 사회의 불의를 개선해 나가는 운동을 벌이라는 지시를 내려 주신 점을 잊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의 교도권이 지시한 바에 따라 사회의 부정 부패, 언론자유억의 봉쇄, 정치질서의 회일화에 반대하여 이 잘못된 점들을 개선해야 하는 우리의 정의와 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지 민감스럽게, 자책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다소 안타까운 일은 사회정의 운동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크리스찬 형제들 속에도 아직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멸히 자유니 민주주의니 하고 떠들다가 월남처럼 나라가 망하고 말면 그때야말로 어디 가서 자유니 민주주의니를 또 찾겠느냐」고 말하는 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운명이 월남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실상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백년하청으로, 해방후 30여년이 지나도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대' 자체만을 이념인양 내세우고, 실상 우리가 궁지를 느낄만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는 가치로서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정의가 없다면 우리나라의 장래야 말로 암담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월남은 안보를 할 줄 모르고 군사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의 민중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옷만 잘 입으면 자유롭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경제가 발전한다고 하지만 요즘을 우리 사회에 창궐하는 각종 범죄를 여러분은 신문 지상을 통해서 매일같이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정신적 가치와 인간 존엄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진리를 전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도인 우리들은 무사안일주의에 타락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이른바 인권과 도덕주의를 주장하는 시대적 흐름이 형성되었고, 후진지역의 민주주의도 점차 발전해 가는 징후가 보입니다. 인도와 터키에서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파키스탄에서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필리핀에서도 정치범을 석방함과 동시에 제엄령을 풀겠다고 공표되었습니다. 역사는 기필코 발전하는 법이며 후퇴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유물론적 공산주의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부지런히 성장시켜야 되겠습니다. 지적학상으로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민

주주의의 성장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적학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지역에서도 공산주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가 필리핀의 공산 게릴라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도 한국도 민주주의를 부지런히 육성시키는 길 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체제, 양심, 자유, 책임의식, 대화, 사회정의, 공동선, 평화, 이런 훌륭한 개념들 하나 하나를 위해서도 우리는 피땀흘려 노력해서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용기있는 행동은 고사하고라도, 우리의 의식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의식 계발운동을 위하여서라도, 우리는 이 기도회에 보람을 느낍시다. 아울러 옥중에 있는 우리의 성직자와 크리스찬인들과 모든 양심수인(良心囚人)들이 건강하고, 하루 속히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1977. 6. 20.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 위원회

□ 사회정의를 위한 미사지향 □

6. 25를 겪은 이 6월에 우리는 이 땅의 안보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해야 하겠습니다.

미군철수라는 불행한 사태에 이르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월남 패망은 소위 일부 몰지각한 종교인들이 인권문제를 들고 나섰기 때문입니까?

카터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미국 노트르담 대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때 우리는 공산주의를 두려워한 나머지, 독재라도 우리와 함께 공산주의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그를 받아들였다.” 음미해 볼 말이라 하겠습니다. 참다운 국민총화와 안보는 참다운 자유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6. 25의 전장에서 죽어간 이유도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카터 대통령의 다음 말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大民主國家들이 강대하고 번영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 국가들이 자유롭기 때문에 강대하고 번영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끔찍한 부정사건에 관련된 피고들이 「나만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사회풍조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관련 공무원들이 「내게는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는 무사안일의 풍조는 이 나라를 어디로 인도할 것입니까?

자유와 민주를 지키다가 먼저 자신분들에게 진정으로 고마움을 느끼며 그들의 명복을 빌면서 6월의 정의평화 미사를 바칩시다

1977. 6. 21

전주 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 알 림 □

지난 주 「숲정 이」 3면의 일부를 삭제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의 원문이 게재되어 있는 「경향잡지 6월호」에 대해 7월호에는 다음과 같은 <알림>이 발표되었습니다. —“본지 6월호가 기사 내용에 관한 당국의 조치로

일부지역에 배달되지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독자 제현의 양해를 바랍니다.”

지난 주 숲정이가 도착되지 않았거나 늦게 도착된 본당은 알려주십시오. 다른때와 마찬가지로 금요일 오후에 발송했었습니다. —天主教 全州教區報 숲정이 편집실



『성전과 비지땀』 (1)

최 한 철 (베드로·금산 본당)

보리개떡으로 끼니를 때우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죽살을 모아 공소 건축기금을 조성하여 조상대대의 한 맺힌 소원을 풀기 위해 주님의 성전을 우리의 손으로 꼭 짓고 말겠다는 일념으로 오늘도 피약벌 아래 비지땀을 흘리며 벽돌을 한장 한장 쌓아올려 하느님나라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의롭고 장한 형제들이 있다. 금산 본당의 백암리 공소가 화제의 주인공이다.

13세대 90명의 교우가 살고 있는 백암리 공소의 역사는 장장 60여년.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순교자 「윤 지충」씨가 살던 금산본당의 지방리 공소와는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백암리 공소 신자들에게는 공소건물이 없어 주일날이면, 비교적 방이 크고 집이 넓은 이 기전씨 댁에서 공소예절을 바쳐왔다. 때로는 방이 좁아 나무와 트랙에 서서, 비가오면 비를 맞으며, 눈이 오면 추위에 떨고 눈보라를 맞으며, 주일을 맞고 보내는 이들에게는 오직 한가지 소망 「우리에게도 넉넉한 공소건물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것.

그러나 이들 가난한 산골마을 농사꾼들에게는 너무도 벽한 소원. 일년내내 농사를 지어 봐야 그 다음해 농사를 지을 때까지는 절반 식량도 되지 않는 형편에 공소건립은 하나의 꿈으로만 생각해야 했다. 역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나 할까. 이들 신자들이 그토록 오래 간직해 나오던 한맺힌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의 소원은 오직 우리의 힘으로 이룩해 보자고 결의에 찬 두주먹을 불끈 쥐고 공소건립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그러니까 벌써 20여년전, 당시 공소회장 박고스마(83세)씨는 교우들로부터 건립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13세대의 몇집 안되는 가난한 교우들이지만 그 가난을 무릅쓰며 6.25 전쟁 직후에 식량사정은 말할 수 없이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보리개떡으로 끼니를 때우고 감자 몇개로 허기진 배를 달래가며 집집마다 항아리에 한줌 한줌 죽살을 모아갔다. 착실히 모아진 기금은 몇년이 지나자 어느정도의 액수가 되어 공소건축이 눈앞에 닥아 오는듯 기쁨은 한이 없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뿐 이들에게 시련이 닥쳐왔다. 건립기금을 교우 한 사람이 몽땅 써 버리고 그대로 죽은 것이다. 그 교우 가족은 너무도 가난하여 상환능력이 없자 끝내 마을을 떠나버렸다. 한껏 부풀었던 가슴은 실의와 좌절로 산산조각이 나고 허탈감만이 가득 차 그토록 커다란 시련을 안겨준 하느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공소건립의 꿈은 좀처럼 버릴수가 없었다. 12년전 회장직을 인수받은 이 기전(55세)씨가 건립기금을 다시 모금하기 시작했다. 지난날의 뼈아픈 상처를 다시는 맛보지 않기 위하여 이 회장은 착실히 기금을 키워 나갔다. 각 가정마다 다시금 조그만 항아리를 하나씩 준비하여 쌓이든 보리쌀이든 죽살을 모아 그것을 다시 돈으로 바꿔 농협에 안전하게 적립해 두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죽살이 모이고 쌓여 해가 바뀔 때마다 기금은 조금씩 조금씩 불어 10년이란 오랜 세월이 흘러, 2년전 지금의 김철제(39세)회장이 회장직을 인수받을 무렵에는 10만원이란 커다란 기금이 조성된 것이다. 이것을 김회장은 방법을 바꾸어 이자도 주고 장리쌀도 주어 20만원으로 키워 놓았다. <계속>

요십이 (205)

서민이 먹는 대중음식값 인상
부자가 먹는 전문음식값 인하!



서민이 하는 대중탕값 인상
부자가 하는 터키탕값 인하!



서민이 자는 여관비 인상
부자가 자는 호텔비 인하!



좋다! 부자들
살기 좋은 세상이구나!



각종 농약, 비료, 비니루, 씨앗

원평 대일농약사

이영희 (다주)

☎ 원평 124번

원평 농업 협동 조합 앞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금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태광사

(구 태양사)
유영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 많이 찾아 주세요 ◎

삼성전자 군산판매장

대표 심가타리나
군산시 중앙로 2가 89-1 ☎ 5000번
천주교회 옥구
군청 화신약국
←역 ↑ 경찰서→

신혼예식장 | 삼성전자

타자수리, 취업알선, 매월검정

뉴-타자학원

원장 신승무(바오로)
전화 ☎ 6664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도송동 605-1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 육교옆 중앙시장분
(전화 ☎ 4577)

* 많이 찾아 주세요 *

군산梨花치과 의원

박안드레아(찬운)
☎ 8711 (천일약국2층)

천일약국 2층 | 조화당
전화국 | 국도극장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사제 서품(5일<화> 11시, 중앙정당) 새 사제 첫미사 (6일<수>, 출신 분당에서) 이순성(베드로, 전동, 10시), 김순태(요셉, 고산, 11시), 김준호(십자가 바오로, 김제, 11시)
 2. **홍인 문제 상담일**(4일<월>) 오후 10시-오후 4시, 교구청 응접실
 3. **분당 실정 파악을 위한 설문지 조사** (전주 교구 평협공문 제77-8호 참조)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전국 협의회(총재 김재덕 주교)는 국내의 모든 분당이 서로 형제애를 나누고 서로 돕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도시와 농촌 분당간의 자매결연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각 분당의 실정을 파악하고자 설문지로 조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정신함양을 위한 이 운동에 적극 협조합니다.
 4.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4일<월>) 오후 8시, 가톨릭 센터...신구교 합동 기도회
 5. **교구 교리교사 연합회 제 2 차 분당 순회 방문**
7월 9일<토>...수유(4시) 10일<일>...신대인(12시), 정읍(3시), 고창(11시), 김제(11시), 부안(3시)
- **교구 인사**(6월 30일자)...7월 8일 오전 사무일제, 7월 9일까지 부임
권영균 신부...화산(둔율동), 김진소 신부...둔율동(화산), 왕수해 신부...장수(진안 보좌), 강덕창 신부...황등(김제 보좌), 한기호 신부...대야(둔율동 보좌), 이순성 신부...진안 보좌(새 신부), 김순태 신부...김제 보좌(새 신부), 김준호 신부...둔율동 보좌(새 신부), 범선배 신부...로마유학(대야), 김기수 신부...로마유학(황등)
- **방송안내**-**문화방송**(MBC)...매일 밤 11시 25분 「별이 빛나는 밤에」 서석구 신부 방송
-**서해방송**(SBC)...매일 밤 11시 30분 「사색의 오솔길」 문규현 신부 방송

(중앙) 전화 ③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분당 신부님 영명(토마)축일(오늘)! **충심으로 축하**와 기도를...
축하식-공식미사 후, 성당, 축하연-축하식 후, 강당 ※ 모든 교우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람
 2. 방지거 3회 월례회: 3일 오후 2시 반, 강당
 3. **축 서품식** 5일<화> 오전 11시, 세 분의 사제 서품과 중앙성당 소속 강령행(요셉)의 부제서품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 어머니 합창단 월례회: 7일<목> 오전 10시
 5. 미사시간에 늦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6. 각 가정에서 정성껏 가꾸신 꽃으로 제대를 장식하여 더욱 뜻깊은 미사를 봉헌하시지 않으렵니까?
- **지난주 봉헌금**: 117,670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박종용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제 2 단계 영세식: 오늘 저녁 8시 반, 해당되는 분들 꼭 나오세요
 4. 어머니 합창단 연습: <금> 10시 미사 후
 5. 젊은이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금> 저녁 8시
 6. 특별 피정: 9일<토> 오후 2시-10시, 재속 형제회 청년회 주회(참가비...400원, 접수 13시 반-14시)
 7. 파티마 성모상 1달동안 분당에...많은 기도를
- **지난주 봉헌금**: 51,406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신축위원 및 사도회 임원회의: 미사 후
2. 영화상영 「가장 기록한 사람」: 13일 밤 8시
3. 새 성당 의자마련 (1조당 4만원, 1구좌당 5천원)에 접어도 자신의 자리는 각각 해야하지 않을까요? (신입은 분당 사무실로 문의 바람)
4. **신입 감사합니다** ① 비품: 김경애-벽화(70만), 김형철-에정용대의자, 의자(숫자는 구좌표시)-조준석(16)유정순(10), 김용환, 이귀연, 김정규, 한상갑, 김수곤, 유계상, 분당 신부(각 8), 송영규(3), 박화순, 김용식, 정복훈(각 2), 김복술, 김봉기(각 1) 주계 93구좌 ② 신축현금: 박준석, 이인애(각 5천) 이명(금 2돈반), 이천주(금 반돈), 총계: 8,827,00원, 금품 3돈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우회 월례회: 24일 야외행사로 대치
3. 학생회 체육대회에서 분당 준우승! 감사합니다

4. 내 이웃(자기 통, 반)에 이삭은 신자, 이삭간 신자(주소 확인), 쉬고 있는 신자를 확인하여 사무실에 알려 주세요
5. **주님과의 약속 이행으로** 교회운영 도움시다
□ **지난주 봉헌금**: 39,635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형택
사도 회장 박장준

1. 사도회 월례회: 10시 미사 후
 2. 7월중 반상회: 1반(5일), 2반(6일), 3반(7일), 4반(8일), 봉헌금 통장 지참하고 꼭 나오세요
- **지난주 봉헌금**: 34,455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사도회, 누갈다 부녀회, 학생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아동 교리<토>** 오후 3시: 대의 귀염둥이들 꼭 보내주세요
 3. 분당 신부님 영명축일에 협조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 교회 운영에 고갈들어 넘어져가니 협조 바랍니다
 5. 신자들의 기도(10일): 정주복, 박해근, 서신동 회장
- **지난주 봉헌금**: 82,48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한철
보좌 신부 김윤성
사도 회장 유석중

1. 사도회: 다음주일로 연기
 2. 성화회: 오늘 10시 미사후
 3. 유아세례: 오후 2시 미사후
 4. 5일은 복자 김대건(안드레아) 신부축일! 대건 신음조합 쉽니다
※ 새 사제 서품 및 첫미사-곰지사랑 참조
 5. **마리아 빨리 참석**사 주임신부님 부산에...
 6. 장우회: 내일부터 3일간, 새성당 기도회
 7. 새성당 기초공사가 시작됩니다. 계속 협조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105,600원

※ 새 성당 신축현금: 전동-교아네스(10만), 문유스(2만), 이송희, 금세시리아, 이베로니카(각 1만)/교동-김안나, 한아오스딩(각 3만), 정인학, 서바오로(각 1만5천), 이화실, 최금구, 이정자, 주세시리아(각 1만) / 동안산동-익명(8만), 유요안나(5만), 이재원(3만), 임바오로(1만)/서완산동-박스메파노(10만), 강병수, 이재진(각 5만), 최성학(3만) 김베드로(2만), 이요한(1만)/풍남동-임정원(3만), 황희도, 육원태(각 2만), 박중식(1만5천), 김혜혜나장루시아, 김진석, 김제노비아(각 1만)/남포송동-박바드리시오, 황시연(각 5만), 김인화(2만), 한마리아, 주양근(각 1만)/중앙동-윤세시리아(받지 1돈)/경원동-유가이다노(10만), 이춘근(1만)/기타-아가다회(6만), 이계민(2만), 이지원, 김준기, 한명자, 황오목(각 1만), 갈라(받지 1돈)
주계: 1,216,000원, 금품 2돈
누계: 25,963,500원, 금품 110돈